

News

신용대출 금리 9% 초읽기... 커지는 빅스텝 공포

이데일리

한국은행, 오늘 금통위로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출 차주들의 불안감 증폭... 머지않아 신용대출 평균 9%대 금리 가능성도 배제 불가
현재 은행별 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 8.97%... 사측은 타사대비 중·저신용자 대출 많이 취급해 리스크프리미엄 붙은 경향 있다고 설명... 향후 금리 더 오를 가능성

금융당국, 시중은행에 소상공인 대환대출 '연 5.5% 이하' 권고

전자신문

금융당국, 각 시중은행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금리를 5.5% 이하로 설정하라고 권고... 실제로 상한 캡 씌운 셈
일반 신규 대출자 비교해도 5.5% 금리는 파격적이라 업계는 당혹... 상한선을 권고해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것이 많지 않아 실질적 금리 비교 효과 크지 않을 것 중론

내놓기만 하면 완판 행진... 은행권 정기예금에 '뭉치돈'

이코노미스트

케이뱅크, 연 1.2% 우대금리 코드K 정기예금 이벤트에 오픈 10분만에 완판...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특판도 출시 7일 만에 한도 조기 소진
현재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시중 유동자금이 많이 풀린 상태... 소비자들의 단기 안정 상품 선호 높아지며 은행 예금으로 자금 더욱 몰리는 상황... 6월말 685조 959억원 기록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신용평가모형 손질하는 시중은행

에너지경제

신한은행, 최근 은행권 중 처음으로 기업신용평가 부문에서 비재무 객관화 모형을 전체 항목에 적용... 신용등급의 객관성, 정확성 높이기 위한 조치
기업은행도 기업 여신에 대한 자동심사 시스템 구축... 기업의 미래 벌어들이 수익 등 미래 성장성 반영한 점 특징... 우리은행은 비대면 채널 특화 모델 정교화 작업 연말 마무리 예정

자동차부상치로비 특약에 다시 몰린 생보사

뉴스토마토

생보사들, 자동차부상치로비 특약에 몰려... 중단했던 흥국생명미 재출시 검토중... 한화생명, 신규 상품 준비 중
자부치에 관심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고객 확보 목적... 가입시킬 수 있는 고객이 많은 틈새시장...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자부치 특약 상품화 방안 논의 중

"위암보다 센 갑상선암 진단비"... 금감원, 들여다본다

이데일리

금감원, 최근 손보험회를 통해 손보사들의 유사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 현황 자료 건네 받아... 일부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가 과도하게 높다는 판단 때문
실적 부진을 만회할 킬러 상품으로 유사암 보험을 내세워 납입면제 조건까지 붙이며 과당경쟁 중이라는 평가.. 메리츠와 DB손보는 진단비를 올해 5월 5,000만원으로 인상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올해 안에 대체거래소 설립"

경향신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7개 대형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 중심으로 ATS 설립준비위원회 구성해 인가 준비와 법인 설립 등 사전 작업 진행중... 2024년초 업무개시 목표
가상자산 등으로 거래 범위 넓히는 문제 관련해서는 당국의 결정사항이라고 일축... 한국 거래소의 독점체제 깨지고 서비스 경쟁 활성화 기대

한국거래소, 주식 결제일 단축 부인... "논의된 적 없다"

팍스경제TV

한국거래소, 주식 매도한 뒤 다음 영업일에 매도액을 정산받는 T+1제도를 이르면 2024년 말 도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아니라고 언급
SEC의 결제 주기 단축 추진 현황을 내부 공유했으나 현재까지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 및 결정된 바 없어...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